

보호자 역할(로마서16:1-2)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신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은혜 가족들은 서로 서로를 보호하는 보호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즉, 세계복음화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뛰어난 목사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성도 혼자서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부족해도 평신도가 함께 보호자가 될 때 교회는 든든해질 수 있고, 세계복음화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목사와 성도들이 한 팀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는 한계에 부딪치고, 세계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충성된 일꾼 “뵈뵈”집사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바울 곁에 선교후원 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16장에 약 27명의 일꾼들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기록된 이름이 바로 뵈뵈입니다. 뵈뵈가 섬기는 교회는 겐그레아 교회였습니다.

겐그레아는 그리스의 동쪽에 위치한 항구도시로써 큰 우상 신전과 동상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겐그레아는 항구도시이다 보니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들다보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 어두움의 도시에 겐그레아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뵈뵈 일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일꾼 뵈뵈를 첫 번째로 소개하기를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편지를 쓰는 것을 봅니다.

1. 뵈뵈

*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고, 이 편지를 들고 실제 로마까지 전달한 뵈뵈 집사입니다.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육로로 2,100키로, 배타고 1,000키로 거리, 약3개월은 소요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뵈뵈가 로마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면 신약성경에 로마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 로마서를 전달할 사람으로 뵈뵈 집사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뵈뵈집사는 믿을 만한 사람, 충성된 사람, 일을 맡기기가 편한 사람, 일을 맡겨도 괜찮은 사람, 일을 맡겨도 부담이 안 되는 사람, 핑계대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 이런 뵈뵈집사를 바울은 로마서 편지서두에 첫 번째 이름을 당당하게 기록한 것을 봅니다. 성경 속에 기록이 되었기에 영원한 작품을 남긴 사람입니다.

(1) 첫 번째 사람(롬16:1)

* 롬16:1,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를 쓰는데 가장 먼저 뵈뵈 집사가 떠올라서 로마서 편지 서두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였고, 또한 그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추천을 한다고 편지를 씁니다.

* 존귀한 일 계획(사32:8),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새은혜 가족들은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는데 첫 번째로 쓰임받

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욕심, 거룩한 욕심 첫 번째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보호자(롬16:2)

* 롬16:2,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 당시 여자는 보호 대상자였을 것인데, 그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뵈뵈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은 후에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하여 전도자, 목회자,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 그런 뵈뵈를 보내노니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잘 영접을 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은 도와주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 뵈뵈는 바울이 선교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울과 여러 성도들의 보호자(방패막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 로마서16장을 보면 바울의 선교사역에 동참하였던 일꾼들의 이름과 별명들을 기록한 것을 봅니다. 바울이 그들을 통해 얼마나 큰 힘을 얻었고, 보호와 도움을 받았으면 이름들을 낱낱이 기록하였을까요?

* 로마서16장은 바울이 선교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여 눈물로 고마움을 표현한 것들이 편지 속에 녹아있는 것을 봅니다.

2. 서로서로 보호자 역할을 하라!

(1) 나의 보호자(시145:20, 사31:5, 사42:6, 유1:24)

① 시145:20,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② 사31:5,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견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③ 사42:6,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④ 유1:24, “능히 너희는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2) 보호자 역할을 하라(롬16:1-2 언약)

- ① 목회자
- ② 교회 성도들
- ③ 주일학교
- ④ 부교역자, 신학생
- ⑤ 선교사, 그 가족

결론> 롬16:19-20

- (1) 선한데 => 지혜
- (2) 악한데 => 미련
- (3) 흑암결박